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85호 2019년 4월 17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영지 연구원

주요내용

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- 러시아 항만, 올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 작년 동기 대비 8% 증가

이슈페이퍼(p.4)

- 카자흐스탄 대통령, 우즈베키스탄 첫 공식 방문

주요 동향(p.10)

• 동부(p.10)

- 선도개발구역 평가 및 개선 사항
- 중러, 북극 연구 위한 공동 연구센터 설립 예정

• 중부(p.1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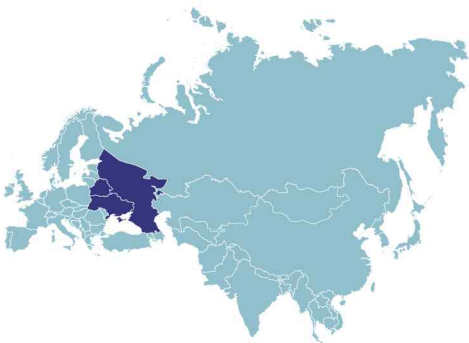
- 몽골 국회 경제상임위원회, 타반톨고아-준바얀 철도 노선 우선 건설 논의

• 서부(p.15)

- 러 정부,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시범 운영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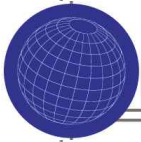
주요통계(p.17)

- 2019년 1분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

통계로 보는 북방

■ 러시아 항만, 올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 작년 동기 대비 8% 증가

러시아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		
단위: TEU	2019년 1분기	작년 동기 대비
총 처리량	1,290,000	8%
- 수입컨	562,020	7%
- 수출컨	530,810	6.2%
- 연안	176,700	12.6%
- 통과	25,130	46.7%
- 리퍼컨	138,280	1.4%
발트해	645,330	11.7%
극동지역	400,960	12%
북극지역	97,780	7.8%
아조프-흑해	210,030	-7.7%

자료: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3904-kontejnerooborot-portov-rossii-v-i-kvartale-2019-goda-vyros-na-8/>(검색일: 2019.04.16.)

- 올 1분기 러시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29만TEU로, 작년 동기 대비 8% 증가함
 - 다만, 작년 컨테이너 처리량 평균 증가율이 13.1%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8%로, 상승 속도가 저속화됨
 - 처리한 수입 '컨' 중 적재 '컨'은 3.8%, 공 '컨'은 74% 증가했으며, 수출 '컨' 중 적재 '컨'은 8.2%, 공 '컨'은 2.9% 증가함



- 특히 아조프-흑해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작년 동기 대비 7.7% 감소함
 - 수출‘컨’은 3.3%, 수입‘컨’은 9.7% 감소했으며, 리퍼‘컨’(35,820TEU)은 18.3%, ‘연안’(410TEU)은 87.3%나 감소했고, 통과‘컨’(110TEU) 역시 40.1% 감소함
 -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나포 사건, 러시아의 대륙크림반도 연결 다리 개통, 아조프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케르치해협 통제 등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역내 항만 물동량은 감소 추세를 보임

■ 참고자료 :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more/53904-kontejnerooborot-portov-rossii-v-i-kvartale-2019-goda-vyros-na-8/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containeri/53913-kontejnerooborot-portov-baltiyskogo-bassejna-rf-v-i-kvartale-2019-goda-vyros-na-117/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

이슈페이퍼

■ 카자흐스탄 대통령, 우즈베키스탄 첫 공식 방문

- 지난 4월 14일 카심 - 조마르트 토카예프(Kassym - Jomart Tokayev) 카자흐스탄 대통령¹⁾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함
 -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(Shavkat Mirziyoyev)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초청으로, 2019년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공식 방문 일정을 가짐
 -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기존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으며, 주로 상업과 운송 및 물류, 사회적 문제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판단됨
 - 특히 양국 언론매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각국 '두 번째 대통령'의 '첫 번째 만남'이라는 점을 이슈로 제시하고 있음
 -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을 진심으로 환대하며,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은 자국 성장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
 - 아울러 정확히 3년 전인 지난 2016년 4월 14일에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(Islam Karimov)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회담을 가졌음
 - 당시에 양국의 교역과 국경 안보 문제, 수자원 문제, 테러리즘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부문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
 - 다만 해외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3년 전 회담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성과는 올해 회담에서 더욱 기대된다고 언급함

1) 독자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19년 3월 20일, 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(Nursultan Nazarbayev)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자진 사임과 함께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카심-조마르트 토카예프 상원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음.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 및 임시 대통령으로 칭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, 헌법 상 공식적인 대통령 취임 선서와 모든 권한이 넘어간 점을 근거로 하여 현지 언론매체나 다수의 국내외 학계에서는 일반적 개념의 대통령으로 칭하고 있음. 이에 이 글에서도 현재 카자흐스탄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실제 정치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언론매체의 원문 전달 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 기술함을 밝혀둠.



- 이는 점진적으로 개방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추진력과 함께 가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당국의 의지와 맞물려 이전보다 양국 관계의 질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임

2016년 4월 14일 당시 양국 정상회담의 만남



자료: <http://www.akorda.kz/>(검색일: 2019년 4월 15일)

- 우즈베키스탄에서 2019년을 카자흐스탄의 해(The Year of Kazakhstan in Uzbekistan)로 지정,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족 간 사회문화적 유대관계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공동의 번영을 그 목표로 두고 있음
 - 지난 2018년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해였으며, 당시 양국 약 200명의 인사들이 모여 21세기 신 실크로드의 구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음
 - 특히 두 국가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, 나아가 국경 개념을 초월하여 튀르크 문화를 향유하는 공동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면서 2018년과 2019년을 각국의 해로 선포한 것임
 - 양국은 이와 같은 문화적 유대관계를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에서 경제 교류도 한층 확대하겠다는 입장임
 - 지난 2013년 6월 14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합의하고, 명시된 경제 협력 전략의 이행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상호 번영을 지향하고 있음



- 아울러 2017년 3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과 같은 해 9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
- 이러한 양국 관계의 축적은 이번 회담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, 그는 '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만들어 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의 임무'라고 언급하기도 했음

2019년 4월 14일 현재 양국 정상의 만남



자료: <https://president.uz/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-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는 기존 두 국가가 구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문화 및 정치, 경제 다방면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사안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음
 -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무역 경제 파트너로서, 2018년 약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양국의 교역량을 오는 2020년도까지 최대 5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함
 -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륙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보다 체계적인 교통 및 물류 운송 인프라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함
 - 실제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지대의 노후화 및 유지보수 공사로 인해



야기된 교통 체증은 양국 교역량 감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음

- 이는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여러 교역 관련 프로젝트의 구현, 산업 기술 단지 건설, 연구 및 혁신 클러스터와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
- 또한 종교적 극단주의와 불법 무기 거래나 마약 밀매 등과 같은 역내 안보 문제해결이 정치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국 협력에 의한 법 집행구조 개선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함
- 여기에는 아랄 해 복원 사업과 같은 수자원 안보 문제도 포함이 되는데, 경제적 여건이 되는 카자흐스탄 쪽 아랄 해 북측 일부만 복원을 진행하기보다 균형적인 복원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밝혔다
- 특히 이 사업은 아랄 해 살리기 국제기금(IFAS·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)과 같이 함께 소속된 기관의 플랫폼으로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전함
- 즉 역내 운송 인프라 구축과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임
- 나아가 양국 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제3국의 물류 운송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교역량을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망임
- 이번 양국 정상 회담에서는 총 10개 항목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, 여기에는 2019년 외무부 간 협력 프로그램, 종교문제 위원회, 정보통신 개발부처 등의 MOU가 포함되었음
- 정치,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양국은 교육 부문에서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는 실정임
- 특히 양국 교육 부문에서는 현재 약 50개 이상의 협약내용이 이행되고 있는데,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소재 교육기관 약 400곳에서 카자흐어가 연구, 교육되고 있으며 이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것임



2019년 4월 15일 '우즈베키스탄의 카자흐스탄 해' 기념식



자료: <http://uza.uz/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- 이러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쟁점은 신 북방 정책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
 - 4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여정이 계획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지역 국빈 방문은 이러한 점을 뒷받침 하고 있음
 -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3개 국가를 순방하는 여정에 있으며, 이번 방문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정치, 무역, 경제, 문화 및 인도주의적 분야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
 - 특히 이전 대한민국 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 접근은 주로 에너지 산업에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면 현 정부는 물류 운송이나 교육 부문, 과학기술 교류 등 보다 다원적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 - 또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그러한 격상된 단계의 협력을 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질적인 측면의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
 -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신 북방정책 이행은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지리적 경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앙아시아 지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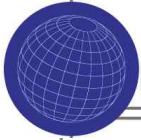


- 이는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,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소통하는 과정 역시 많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■ 참고자료 : Азаттық Радиосы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Жас Алаш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Интерфакс Қазақстан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Қазақпарат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Президентінің ресми сайты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O'zbekiston Milliy axborot agentligi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O'zbekiston Respublikasi Prezidentining rasmiy veb sayti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The Tashkent Times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The Times Of Central Asia(검색일: 2019년 4월 12일)

오상호 리포터(한국어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동부권역 주요 동향

■ 선도개발구역 평가 및 개선 사항

- 세르게이 티르체프 극동북극개발부 차관은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바이칼 지역 개발 위원회에서 선도개발구역에 대해 평가함
 -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정책 중 하나인 선도개발구역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특구보다 세제혜택과 사회공헌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
 - 현재 극동지역은 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1/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만 하더라도 극동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러시아 전체의 약 2%에 불과했음
 - 2015년 첫 번째 선도개발구역이 세워졌으며 푸틴 정권기간동안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됨
 - 18개의 선도개발구역에서 약 334개의 기업이 약 2조 3,000억 루블을 투자했고 이에 따라 약 5만 8,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김
- 본 회의에서는 선도개발구역의 사회·환경적 문제와 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함
 - 선도개발구역의 투자계획에 대한 기술 및 경제적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면 투자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금융문제, 투자지에 대한 이미지 등이 감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
 -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감사원 유리 로스랴크는 투자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차별을 없애는 등 선도개발구역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이 필요하다고 함
 - 또한 러시아 연방 안전 및 안보 위원회의 바리스 잠수예브는 선도개발구역 투자자에게 집중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함
- 세르게이 티르체프 차관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의 입법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함

- 이에 따라 극동북극개발부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선도개발구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으며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
-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시설 국가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법안과 선도개발구역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업 및 취업 비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기간 연장 등에 대한 법안임
- 또한 아시아-태평양 국가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607/>(검색일: 2019년 4월 14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■ 중·러, 북극 연구 위한 공동 연구센터 설립 예정

중국-러시아 공동 연구센터 설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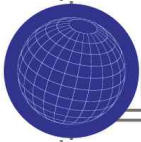
자료: www.highnorthnews.com (검색일: 2019.4.16.)

- 제5회 국제북극포럼에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해양연구소와 중국 청도 국립 해양과학 기술 연구소는 공동 북극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
 - 연구센터는 북극의 기후, 지질학, 생태학 등에 대한 조사 및 기후변화가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이는 기존 중·러 간 북극 연구 협력의 대부분이 산업 발전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판단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highnorthnews.com/en/russian-and-chinese-scientists-establish-arctic-research-center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조지성 전문연구원

051-797-, jisungjo@kmi.re.kr



중부권역 주요 동향

■ 몽골 국회 경제상임위원회, 타반톨고이-준바얀 철도 노선 우선 건설 논의

- 지난 4월 10일 몽골 국회 경제상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철도개발정책을 논의
 - 지난 2월 27일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타반톨고이(Tavantolgoi)-차강소와르가(Tsagaansuvarga)-준바얀(Zuunbayan) 노선을 2019년에, 타반톨고이-가슉소하이트(Gashuunsuhait) 노선을 2020년에 건설하는 정책을 제안
 - 우선적으로 총 414.6km 길이의 타반톨고이-준바얀 노선 건설에 합의
- 베.엔흐암갈랑(B.Enkhamgalan) 도로교통부 장관은 타반톨고이-준바얀 노선을 몽골에서 직접 투자해 건설하는 것으로 언급
 -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7일 제.엔흐볼드(Z.Enkhbold)몽골 대통령비서실장은 "'에르데네스-타반톨고이(Erdenes-Tavantolgoi)' 사(社)의 2018년 순수익인 8천억 투그릭의 85%를 철도 건설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"고 언급한 바 있음
 - 또 본 철도 노선 건설에 몽골 군대를 동원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
- 몽골 정부는 2010년 정부 철도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침
 - 본 정책은 6개의 신규 철도 노선 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, 타반톨고이-사인샨드(Sainshand)(468km), 사인샨드-후트(Hööt)(450km), 후트-초이발산(Choibalsan)(155km), 후트-누므룩(Nömrög)(380km), 타반톨고이-가슉소하이트(267km), 초이발산-에렌잡(Ereentsav)(210km)이 이에 해당됨
 - 위 정책은 2014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은 두 번째임
- 타반톨고이-준바얀 노선을 타 노선보다 우선 건설함으로써 수출로 확대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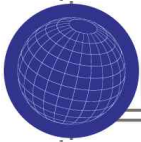
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
- 본 노선을 통해 유연탄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

■ 참고자료 : News.mn(검색일: 2019년 4월 14일)

신민선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서부권역 주요 동향

■ 러 정부,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 시범 운영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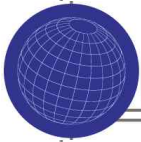
- 러시아 교통부는 2019년 내 국제화물을 위한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음
 - 러시아 교통부와 산하기관 모르스바즈스푸트니크(Morsvyazputnik)은 덴마크 물류기업 머스크(Maesk)와 시범사업 착수를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할 예정임
 - * 해당 시범사업에 머스크와 IBM가 합작으로 2018년 여름에 출시한 블록체인 운송 솔루션인 트레이드렌즈(TradeLens, 이하 '솔루션')가 도입·운영될 것임
 - * 이 사업은 몇 차례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 후 2019년 하반기에 운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
 - 시범사업은 발트해 지역 주요 항만 중 하나이며 러시아 2대 항구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항만(Big Port)에서 추진될 것임
- 솔루션 도입으로 인해 물류·세관 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
 - 스마트 계약 체결로 각종 서류절차가 간소화되고 분권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기업, 물류기업, 운송기업 등 공급사슬 참여자들이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
 - 아울러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100억 루블(약 1.5억 달러)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
- 이 사업을 통해 관련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될 경우 다른 항만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임
 - 현재 러시아 운송기업 인포테크발티카(Infotech Baltika)도 대항구를 포함한 14개 항만을 위해 트레이드렌즈와 유사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 엣지포트(Edge.port)를 개발하고 있음



- 참고자료 : <https://bitsonline.com/russia-ibm-maersk-blockchain-logistics/>(검색일: 2019년 04월 07일)
- <https://www.coinegg.com/cms/view?id=1735.html>(검색일: 2019년 04월 07일)
- <https://bitnovosti.com/2019/02/28/mintrans-sobiraetsya-vnedrit-blokchejn-v-morskie-gruzoperevozki/>(검색일: 2019년 04월 07일)

민지영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misjee@hanmail.net



주요 통계

2019년 1분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)

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18-2019년 증감(%)
극동 지역	30.14(+7.2%)	19.47(+7.0%)	49.61	+7.1%
북극 지역	7.54(+12.0%)	18.57(+31.1%)	26.11	+24.9%
발트해	26.13(+4.7%)	36.70(+5.3%)	62.83	+5.1%
아조프-흑해	22.68(-18.0%)	38.95(+5.8%)	61.63	-4.4%
카스피해	0.65(-20.2%)	0.96	1.61	+20.8%
합계	87.14(-1.3%)	114.66(+90.7%)	201.80	+4.7%

참고자료 : <http://www.morvesti.ru/detail.php?ID=78095>(검색일: 2019년 4월 16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